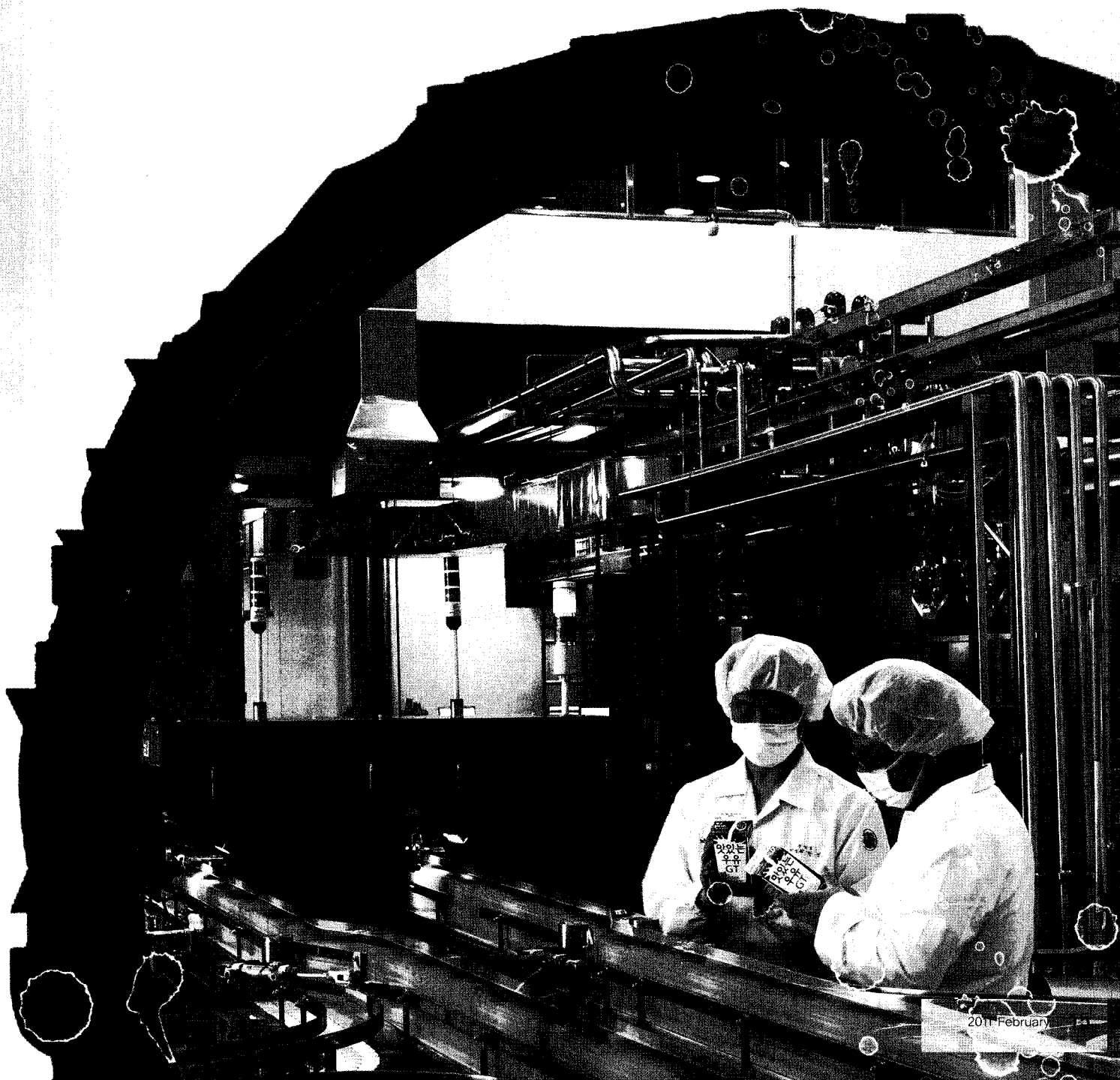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안전' 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취재 · 사진 | 글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남양유업(주)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을 내세우고 1964년 3월 설립됐다. 안전의 밑바탕인 '인간 존중'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만큼 이곳에서는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긴다.

'인간존중을 통한 무재해 사업장 실현'이라는 명확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그간 펼쳐온 안전보건운동만도 셀 수가 없을 정도.

일부에서는 이처럼 생산성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 이곳을 우려스런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하는 우유 등의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안전성을 후순위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이곳 경영진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

이런 확고한 안전중심경영이 불러온 결과는 화려했다. 탄실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다. 1965년 11월 천안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공주공장, 경주공장, 천안신공장, 나주공장 등을 연이어 설립해 사세를 확장한 것은 물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응지(雄志)를 세우고 있다. 또 각종 안전보건 관련 상도 휩쓸었다.

안전으로 유음료업계의 미래를 열고 있는 남양유업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대표적 공장인 천안신공장을 찾아가봤다.

인식이 있어야 실천도 있는 것

2002년 5월에 완공된 천안신공장은 가공유, 커피유 등 다양한 유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과 미보건부 'A급 살균우유 품질기준(PMO)' 인증을 획득, 식품안전을 확보한 것은 물론 안전을 중시하는 모기업에 발맞춰 사업장 안전보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안전교육'이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틀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첫 번째는 팀별교육이다. 각 팀별로 작업과 설비 등을 고려해 안전교육교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관리감독자가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말은 바 업무에 최적화된 안전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는 전사적인 교육이다. 이는 소방 등 공통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참가 인원이 많다보니 자칫 획일화된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곳에선 교육과정 대부분을 체험안전교육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삼중의 시설관리

이곳은 '신공장'이라는 명칭에서 예감할 수 있듯 생산 전라인에 자동화설비가 갖춰져 있다. 이들 시설의 경우 첨단설비인 만큼 안전장치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테커 크레인, RGV, 로봇 등 대형 설비가 많다보니 작은 실수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큰 것.

그래서 이곳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인터록 잠금장치 설치, 안전웬스 설치, 충격감지 센서 부착 등 다양한 시설안전대책을 운용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연간 안전관리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운영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각 현장에는 용접, 용접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밖에 밀폐작업,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등 위험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안전담당자와 공무원장이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자율 속에 꽃 핀 안전관리

자율적인 안전활동이 많다는 것도 이곳의 특징 중 하나다. 이곳은 각 팀의 안전담당자 주관 하에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방식이나 절차가 모두 자율적이다. 때문에 팀원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안전에 관한 개선안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팀별 안전담당자들은 이렇게 모인 각자 팀들의 의견 중 우수사항을 추려 서로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곳은 안전관리시스템도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실행하고 있다. 일례로 화재, 폭발, 유독성물질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일종인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 실행하고 있다.

건강관리에도 만전 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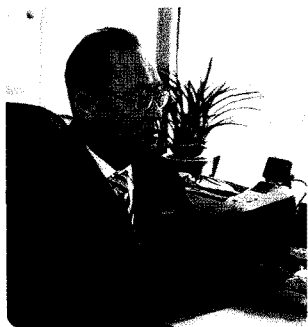
이곳은 최근 안전보건 동향에 발 맞추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예방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연운동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전사적인 금연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완전 금연 사업'을 실현했다. 이러한 활동 덕에 매년 뇌·심혈관 발병위험도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건강검진결과 우수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건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업계를 이끄는 안전기업 되길...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이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제19회 세계금연의 날), 행정자치부 장관상(제4회 2011년 소방의 날) 등 국내 유수의 안전보건관련 상을 수차례 수상했다. 게다가 작년에는 무재해 7배 달성(2010.8.1/2,240일)이라는 성과도 이루어냈다.

올해 5월 1일이면 이곳은 무재해 8배를 달성한다. 현재와 같은 우수한 안전관리가 지속된다면 8배가 아닌 10배, 20배를 달성하는 것도 분명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부디 이곳이 지금의 안전열정을 유지하여 업계의 안전문화를 이끄는 표상이 되길 기원해 본다. ☺



전 태 흥 공장장

안전은 행복지킴이입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설비의 결함이나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과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설마하는 그릇된 생각'이 사고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불행해집니다.

저는 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가족의 웃음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작업 시작 전에는 꼭 위험포인트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